

살인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고 선 영[†]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대부분의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인자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살인에서 정신적 요소와 연관된 살인은 소수이고, 그 밖의 여러 다른 요소가 관련이 되어 있다(Howitt, 2002). 사실 통계적으로 살인 범죄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인 범죄를 두려워하고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이윤호, 2002). 이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로 초래되는 피해가 영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고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 죽들에 대한 갖가지 피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수정, 2010).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살인 범죄는 빈약한 사회 경제, 가족 해체, 그리고 실패한 사회공동체로부터 발생하며, 그들 일부는 폭력문화를 찬양하거나 정당하다고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사회, 문화적 혹은 개인적인 수많은 변수들은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그러한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살인 사건의 수사 시 사건 현장을 접한 많은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보고 처음 떠오르거나 인식되는 직관에 의해 사건을 이해, 용의자를 선정하는 등의 수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최초 살인사건 현장 입장 시에 갖는 직관력이 사건의 본질과 일치할 경우는 사건 해결시간이 단축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수정하는 동안 미제사건이 되거나 혹은 범인이 도주하여 범인검거에 실패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보다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가 수사관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살인 범죄현장에 최초 입장 시 수사관들의 주관적 직관에 의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관들의 직관에 의한 불확실한 수사방향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범죄현장에서 나타난 범죄자 현장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살인 범죄의 현장에서 나타난 범죄자의 현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살인범죄의 특성 및 살인 수사의 개념과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살인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살인범죄의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변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살인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외국의 사례 및 알코올이 반영된 살인범죄 현장과 일반적인 살인범죄 현장특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인 범죄자의 어떤 특성들이 범죄 현장에서 독특한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지 범죄자의 심리적, 사회 문화적 특성에 근거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살인의 특성, 살인 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자 유형, 살인범죄현장행동

[†] 교신저자 : 고선영,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Tel : 010-2474-4171 E-mail : mapia74@hanmail.net

최근의 살인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해마다 1,000여건으로 변동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상승하여 발생하였다(강은영, 박형민, 2008). 살인범죄는 통상 전체 범죄 발생률의 0.2% 정도에 해당되며 검거율¹⁾은 99%에 해당된다. 사실 통계적으로 살인 범죄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인범죄를 두렵고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이윤호, 2002). 이는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로 초래되는 피해가 영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고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갖가지 피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수정, 2010).

대부분의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인자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살인에서 정신적 요소와 연관된 살인은 소수이고, 그 밖의 여러 다른 요소가 관련되어있다(Howitt, 2002). 이는 폭력범죄에서의 정신적 혹은 다른 개인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범죄행위는 어떤 한 개인의 정신적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복잡 다양한 상황적 요소와의 조합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살인 범죄는 빈약한 사회 경제, 가족 해체, 그리고 실패한 사회공동체로부터 발생하며, 그들 일부는 폭력문화를 찬양하거나 정당하다고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또한 문화적

맥락에서 타인에 대한 높은 공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Leyton(1986)에 의하면 즉각적인 원인에 의한 살인은 욕망이나 범죄의 기술 때문이 아니고 폭력이 적절하다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문화 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너무도 복잡하게 기능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이유만으로 살인범죄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확산으로 현대인은 공격성에의 노출을 포함한 유사한 메시지와 정보 전달로 인해 매우 유사한 문화 속에 살게 된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사한 문화 속에 생활하지만 다양한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다. 즉, 살인이라는 행위에 있어 범죄의 개인차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게 된다.

사회, 문화적 혹은 개인적인 수많은 변수들은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그러한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살인 사건의 수사 시 사건 현장을 접한 많은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보고 처음 떠오르거나 인식되는 직관에 의해 사건을 이해, 용의자를 선정하는 등의 수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경험과 지식에 의한 직관 수사의 적중률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경험에 대한 설명은 틀릴 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될 수도 있으며(Ericsson, & Simon, 1980; Fiske, 1980), 경험에 대해 느끼는 확실성은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Myers, 1990). 사실 자신감과 정확성간의 상관성이 낮다(Paese, & Sniczek, 1991; Sniczek, & Henry, 1990; Fiske, & Neuberg,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사관들은 확증적 가설검증

1) 검거율은 당해 해결한 사건의 비율로, 전년에 발생한 사건도 당해 년에 해결할 경우 당해년에 검거율을 포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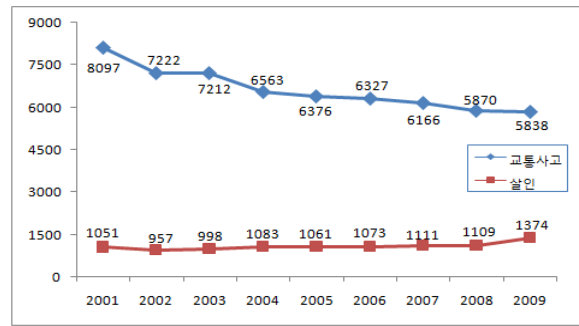


그림 1. 사망 원인별 비교: 교통사고 vs 살인사건(경찰백서, 2009)

방략²⁾을 사용하기 때문에(Einhorn, & Hogarth, 1978) 사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의사결정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된다. 문제는 최초 살인사건 현장 입장 시에 갖는 직관력이 사건의 본질과 일치할 경우는 사건 해결시간이 단축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수정하는 동안 미제사건이 되거나 혹은 범인이 도주하여 범인검거에 실패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가 수사관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살인 범죄현장의 최초 입장 시 수사관들의 주관적 직관에 의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관들의 직관에 의한 불확실한 수사방향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범죄현장에서 나타난 범죄자 현장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살인 범죄의 현장에서 나타난 범죄자의 현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살인범죄의 특성 및 살인수사의 개념과 살인범죄 현장행동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사전기대 또는 사전이론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정보를 수집하려 드는 데 이를 확증적 가설검증방략이라 한다.

살인범죄의 개념 및 법적 이해

타인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살인에는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도로에 떨어진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는 상해의 의도 없는 사고와 같은 용서 가능한 살인, 강도범죄와의 격투 중에 강도범이 사망하는 자기방어와 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행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배중인 범인을 추격하거나 체포하는 도중 범인이 사망하는 경찰관의 업무 중 살인, 전쟁터에서 병사가 조국을 위해 적을 살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렇듯 살인을 포함한 기타 폭력행위에 대한 것은 그것의 합법성 여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지 지지받는지의 여부와 계산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윤호, 2002). 범죄학에서 관심 대상은 위와 같은 살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불법적인 죽음인 범죄적 살인행위(Mannle, & Hirschel, 1988)가 해당된다(이윤호, 2002; 이수정, 2010). 살인의 규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률로서 규정되는 구성요건이 해당되며,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로 범위가 정해져야만 한다(공정식, 2005; 이수정, 2010). 그 예로 과실치사와 비과실치사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살인과 과실치사의 주요한 차이점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 여부에 있다. 즉, 과실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무모함과 부주의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과실치사는 사전 계획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범죄자의 원래 의도가 살인은 아니었으나 특정 상황에서 너무 흥분하고 감정이 격해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영아 살해의 경우 동기를

참작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촉탁·승낙 살인, 자살교사 및 방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살인미수의 경우 앞서 나열한 모든 죄에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또한 특별법상의 살인규정으로는 특정가중처벌법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치사죄 등이 있고, 이는 본법에 더해 형이 가중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살인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라는 점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고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이수정, 2010).

표 1. 형법상 살인관계 규정

법조 및 죄명	개념 규정
제88조 내란목적 살인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죄
제250조 제1항 살인	살인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존비속관계에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살인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및 방조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죽음을 이르게 한 경우
제253조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거나 자살교사 방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제254조 살인미수	위의 모든 규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제255조 살인예비·음모	살인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제301조의2 강간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범죄 중 살인의 고의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288조 강도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강도의 범죄 중 살인의 고의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이수정, 2010)

살인의 특성

살인은 동질적 행동이 아니다. 즉, 살인범들은 동기, 환경적 요소, 인구학적, 내적 역동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성, 사람, 정서와 돈, 재산은 물론 약물이나 알콜에 기인한 살인 등 각기 복잡 다양한 조화의 다른 요소가 살인의 원인이 된다(Roberts, et al., 2007). 살인률이 전쟁기간 동안 가장 증가하며 살인 이외의 다른 폭력 범죄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은, 광범위한 사회적 사건이 개개인의 범죄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 할 수 있다(Pozgain, Mandic, & Barkic, 1998). 또한 동기와 결과의 인과관계로 비교해볼 때, 살인의 행위는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결과로 나타나는 살인은 극단적으로 심각한 인간행동이지만 매우 사사로운 부부 싸움, 말다툼이 살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를 대변해 준다(공정식, 2005). 또한 다른 범죄(강도, 강간 등)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살인 등 살해 동기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이 야기되는 등 살인은 매우 복잡 다양한 요소나 상황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인 사형제도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볼 때 사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억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은 억제되지 않는 격정적 범죄로 특징되기도 하며,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존치된 주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은 살인에 대한 사형의 억제효과는 기대보다 적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윤호, 200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형집행 직후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억제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상당수의 살인 범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범하게 된

다(Phillips, 1980). 이처럼 사형제도 조차도 살인범죄율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살인 범죄 대부분이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폭발적인 감정의 압박에 의해 저질러지는 격정의 범죄이기 때문이다(Chambliss, 1969).

통상 신체적 상해가 적은 범죄일수록 낮은 사람에 의해 행해질 확률이 높은 반면 신체적 상해가 큰 범죄일수록 낮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질 확률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Thio, 1983).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은 사람으로부터의 공격과 살해의 위협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살인의 경우 낮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오히려 많은 경우 면식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이윤호, 2002). 일반적으로 강도나 강간 등의 다른 범죄와 동반해서 발생하는 살인은 전형적으로 낮은 타인과 연루되는 반면, 분쟁이나 대립과 같이 감정이 연루된 상황의 경우 서로 알고 있는 개인 간의 살인일 경우가 많다. 즉, 물질적 취득을 주요 동기로 하는 강도 살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가족 등 근친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Mulvihill, Tumin, & Curtis, 1969), 대단한 감정이 수반되는 살인에 있어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 낮은 이방인이 살해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Levi, 1981).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까이서 보내는 이들이 가족이고 이들이 즐거움은 물론 좌절과 상처의 주요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ulvihill et al., 1969). 이런 점에서 Thio(1983)는 살인은 가족 문제 혹은 가족사(Family affair)라고 칭하기도 했다. 시대가 변화하여 가족 외 친구나 애인, 직장 동료 등 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

에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대부분 가 족이었던 과거와 다소 차이가 생길 수는 있으나, 다른 범죄들과 달리 살인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살인 피해자는 사람들의 동정심의 대상이 되고 연약한 살인피해자가 강하고 공격적인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운호, 2002).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가정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의 주된 살인 동기는 남편의 학대였다. 그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찾은 폭력피해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심하게 구타당하고, 도구를 이용한 학대는 물론 성관계 강요, 더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더 많은 죽음에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e, 1987; Dutton, Hohnecker, Halle, & Burghardt, 1994; O'keefe, 1998). 또한 지난 30년 동안 살인사건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 유발요소가 살인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UCR, Annual, 1976-1994). Wolfgang(1958)이 지칭한 피해자 유발살인(victim-precipitated homicides)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는 피해자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범행당시 피해자의 언어적 혹은 물리적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발생 당시 누가 먼저 흥기를 사용하였는가에 의해서도 판단 가능하다(Wolfgang, 1958; 박순진, 2000). Wolfgang은 심지어 이렇게 스스로 자초한 살인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살해당하기를 원했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가정하며,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Thio, 1983). 물론

정말 피해자가 죽고자 했던 가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이는 왜 피해자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이운호, 2002), 나아가 이러한 가정은 피해자 유발론을 정당화하여 살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발생 상황에 따른 피해자 유발 개념은 최근 살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Block, 1993; Felson, & Messner, 1998; Polk, 1997; Savitz, Kumar, & Turner, 1993; Sobol, 1997)

살인 범죄의 원인

살인 범죄의 원인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원인에서부터 심리적 원인까지 각각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논문이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 논문 주제에 적합한 심리적 원인만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연쇄살인이 공동체나 사회문제 전체로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포함한 심리학적 측면의 견고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하며(Bartol, 1999), 더욱이 유사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개인들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Drukteinis, 1992; Holmes, & Holmes, 2001)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살인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심리학적 이론으로 좌절과 폭력성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공격성은 항상 좌절의 결과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여기서 좌절은 목표성취 시도의 봉쇄를 의미하며, 기대하는 목표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이런 좌절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정된 좌절공격가설에 따

르면 공격적인 행동은 개인이 의도적으로 방해받는다 생각될 때 발생하고, 반대로 자신이 방해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나 수단이라면 자기-억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Berkowitz, 1989). 그런데 문제는 공격성이 좌절의 결과라고 하지만 항상 좌절감이 공격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좌절이 공격적인 행동가능성을 증대시키지는 모르겠으나(Berkowitz, 1965) 인간이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좌절공격이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살인범의 성격적 특성이다(김진혁, 2002). 성격은 변화가능성이 적은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격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Watson, 2001). Megargee(1966)에 의하면 가장 공격적인 두 집단은 과잉통제형과 통제결함형 성격의 소유자이다. 과잉통제형은 그들이 좌절하거나 화가 치밀었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주로 억제하는 것이며 반면 통제결함형은 분노에 직면했을 때 자주 폭력행위에 연루된다. Blackburn(1971)은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살인범은 분노를 억제하는 유형으로, 내성적이고 과잉통제형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많은 살인범의 경우 어린 시절 과잉행동장애를 지니거나 싸움을 좋아하며 짜증을 잘 내며 더 외향적인 성격특징을 지니고 있었다(Tupin, Mahar, & Smith, 1973). 하지만 초범자는 무능하고 외롭고 좌절과 같은 기분을 주로 느끼며 내향적이고 심적 괴로움을 많이 겪은 유형임이 밝혀졌다(Blackburn, Weiss, & Lamberti, 1960). 나아가 Lee, Zimbardo, & Bertholf(1977)의 연구에서 10명의 초범 살인자 중 8명은 ‘수줍어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보고하였다.

Andrews, Bonta, & Hoge(1990)와 Gendreau, Little, & Goggin(1996)의 연구에서는 성격이 범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처한 성격속성은 일반적으로 불안 또는 신경과민보다는 오히려 반사회적 사고와 정신병질과 관련되어 보인다(Andrews, & Bonta, 2003). 최근에는 살인범을 포함한 범죄인의 심리적 특성 중 일반적으로 잘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잠재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정신병질이나 기질 불안 등을 중심으로 범죄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각광받고 있다(공정식, 2005). Petherick(2003)은 살인사건의 범죄현장을 보면 범인의 성격 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계획적이고 매우 잘 정돈되어 있고 피해자 선택에 있어 낮은 자를 선택하고 시체를 교묘하게 유기하는 정신병질적 유형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범죄현장이 우발적이고 폭발적인 폭행흔적과 비구조화된 특징이 발견되고 피해자 선택에도 어떤 식으로든 살인 범죄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시체를 사건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특성을 지니는 정신증적 유형에 속하는 살인범이다. Levenson, Kiehl, & Fitzpatrick(1995)의 연구에서 추론하였듯 정신병질과 불안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정신병질자의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데는 유전적 요인이나 기질적 요인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환경이 작용하여 반사회적 행동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안 드러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수정, 허재홍, 2004). 또한 배우자의 극심한 학대결과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변호논리가 되는 때 맞는 아내 증후군과 학대에 기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살해동기가 되는 경우이다. 이

렇듯 불안은 심리적 자극, 기질, 행동 동기, 일이나 곤경 따위에 쫓기고 있는 상태로 규정된다(Endler, 1983).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들에 의해 더 심해지며(Warren & staff, 1966; Palmer, 2002) 불안이 위협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견해는 여러 연구들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Listwan, Sperber, Spruance, & Van Voorhis, 2004).

살인범죄의 수사

모든 주요 범죄 중 하나인 살인수사는 경찰력의 가장 커다란 노력을 요구하며, 범죄수사 과정에서 언제나 수사관을 괴롭히는 문제는 범인을 확인하고 가려내는 일이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더라도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또한 같은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 경찰은 그 근거가 될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Innes, 2005). 살인 범죄현장의 피상적인 평가는 자연적인 죽음인가 아니면 사고에 의한 죽음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어 모든 살인수사를 위해서 다음의 단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이것은 사체배치를 위한 노력을 미리 피한 살인 가해자의 경향성을 설명한다는 사실로, 사체가 없는 경우는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불법적인 행동 혹은 행동 실패에 기인한 죽음,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행동이 죽음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Becker, 2000). 살인사건 해결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Litwin, 2004; Puckett, & Lundman, 2003). 하나는 성별, 연령이나 인종 등을 포함하는 피해자의 특성이 경찰의

수사적 활동을 이끈다는 것으로(Black, 1980; Paternoster, 1984; Perterson, & Hagan, 1984), 이 측면은 범죄의 갈등이론(Quinney, 1977; Turk, 1969)과 피해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덜 호의적인 경찰의 반응³⁾ 등을 포함한 법적 시스템에서 제안되는 Black(1976)의 법적 행동이론(Behavior of Law theory)을 기초로 한다. 만약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평가절하했다면 그런 살인사건 해결에는 수사적인 노력을 덜 들일 것이다. 즉, 여성, 청소년과 소수민족 피해자의 살인사건은 남성, 성인이나 백인 피해자 수사보다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 하나 측면은 경찰은 살인사건 해결 시 조직과 공공 사회의 압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모든 살인사건에서 최대한 기꺼운 태도로 반응하고 피해자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수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Byunm, Cordner, & Green, 1982; Gottfredson, & Hindelang, 1979; Klinger, 1997). 즉, 경찰은 인종, 연령 등의 피해자 특성 대신 목격자나 다른 제 3자에 의해 제공되는 물리적 증거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 수사에서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목격자가 많은 경우, 혹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에 의한 살인사건은 해결이 좀 더 쉽다(Litwin, 2004; Reidel, & Rinehart, 1996). 칼이나 손으로 살해한 것보다 화기나 독살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이 더 어렵고, 피해자와 가까운 접촉이 부족하여 물리적 증거(범죄자의

3) 피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고려 없이 경찰(사법기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지만, 실제로 존경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호의적이지 않는 경찰의 반응

머리카락, 혈흔, 지문 등)가 부족할 경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Geberth, 1996; Litwin, 2004). 결과적으로 피해자 특성에 대한 수사관의 재량이 검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신체적 증거 및 정보와 관련된 즉각적인 상황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 살인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Roberts, 2007). 살인사건 수사에 대해 Fisher와 Baca(2004)는 수사관은 방대한 양의 증거 수집, 목격자, 용의자, 범죄현장에 참관한 수사관, 범죄병리학자 및 범죄학자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잘 어울려 조직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수사관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현장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최근 국내 실무에도 활용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Fisher와 Baca가 강조한 수사관의 능력 중 중요한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의 행동 이해 바탕을 시작으로, 범죄현장의 분석과 유·무형 증거의 설명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해내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Pinizzotto, & Finkel, 1990; Rossomo, 200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결과적으로 실수와 억측으로 가득 찬 육감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일화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들을 억측해온 것이며(Pinizzotto, & Finkel, 1990)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수사관과 심리학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Baumgartner, Ferrari, & Palemo, 2008)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 및 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사실, 살인수사

와 관련된 수많은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특별한 실험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설계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으로 실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죄현장과 관련된 범죄자의 분류체계 설계는 이런 체계를 지지할만한 원리에 대한 연구와 좀 더 철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전의 절차를 보다 분명히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된다(Salfati, 2000)는 점에서 높은 기여가치를 지니고 있다.

살인 범죄의 유형

살인범의 성격과 내면의 동기를 설명할 목적으로 범죄학자나 사법기관의 연구자들은 살인범 특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살인 범행의 사회-인구학적 맥락이나 적합한 살인 유형의 수나 분류태마를 개발해 오고 있다(Roberts, Zgoba, & Shahidullah, 2007). 그러한 범죄자 유형 연구는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195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Wolfgang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알려진 살인의 유형 중 하나는 1970년대 Douglas, Mullany, Teten, Ressler, Burgess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하 FBI)의 행동과학부, FBI의 폭력범죄분석을 위한 국가기관(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이하 NCAVC)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범죄현장행동의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이 유형은 체계적(Organised) vs 비체계적(Disorganised) 살인범으로 구분된다.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의 주요전제는 행동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범죄해석에 있다. 체계적인 범주는 체계적인 범죄자 특성에 상응하는 조직적·체계적이고 사전 계획적

인 범죄를 포함하며 전형적으로 성도착 범죄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비체계적 범주는 무질서하고 우연적이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범죄자 특성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Kocsis, Cooksey, & Irwin, 2002). 이분법적 유형론은 4가지 전제에 근거하는데 첫째, 범죄현장은 범죄자의 성격을 반영하고, 한 범죄자가 저지른 행동방식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셋째,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의미하는 인증(Signature)은 동일한 일관성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자의 성격특성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범행방식을 갖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Holmes, & Holmes, 1996).

NCAVC에서는 최초의 범죄현장지표에 근거한 살인동기에 따른 4가지 유형을 개발하였다. 청부살인, 갱이 연루된 살인, 보험이나 상속, 강도 살인 등의 범죄자의 계획적 살인이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가정폭력이 관련된 살인, 정치적 혹은 종교적 살인, 또는 안락사 등의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살인이 있다. 세 번째, 강간살인, 아동 강간, 아동 연쇄 살인과 같은 성적 살인과, 마지막으로 승배와 관련된 살인, 즉 극단론자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집단이 원인이 된 살인으로 분류한다. 또한 FBI에 의해 사용된 범죄분석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에서는 6개의 카테고리 살인을 분류한다: 단독 살인, 2인 살인, 3인 살인, mass, spree, 연쇄 살인. Holmes & Holmes(1998, 2001)는 살인범, 특별히 연쇄살인범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살인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명령을 부여받았다고 여기며 신 혹은 악마나 천사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는 망상형 살인범이 첫 번째 유형이다. 직무수행(미션형)은 정권이나 집단을 설립하고

자 하는 지구상의 미션에 의해 추동되는 범죄자들로 그들은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만이 세운 합리성에 의해 살인한다. 쾌락적 살인범은 스킬과 욕망, 즐거움을 위해 살해하며, 이들에게 있어 살인은 자신의 쾌락원리의 표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좌절된 마음과 성격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들의 힘이나 통제를 상징화하기 위해 살인을 하는 권력형 살인범이 있다. 10년 이상 살인범 유형의 쟁점을 연구해온 Fox와 Levin(2006, 2005, 1996)은 주요 유형에 따라 연쇄살인, 대량살인, 연속살인의 3가지 유형으로 살인을 분류하였다. 나아가 이 3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권력 기본형, 복수형, 충성형, 이익추구와 테러에 의한 살인범 등 총 5가지의 동기적 유형을 개발했다. 또한 Robert 등은 동기적 근원과 특수성 보다는 경험적 분석에 의한 범죄자 특성과 그들의 관련성,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범죄자 특성이라는 맥락을 기초로 둔 재범 예측을 위한 유형론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4개의 유형은 언쟁이나 논쟁에 기인한 살인, 중범죄 중의 살인, 가정폭력 혹은 범죄자와 관련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등의 우연한 범죄 유형이 해당된다(Roberts et al., 2007).

최근의 상당히 중요한 살인연구는 영국 리버풀 대학의 수사심리학 센터의 Salfati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기초로 하여 일반화되고 있다. Salfati(2001; Salfati, & Grey, 2002)는 36개의 범죄현장 지표를 기초로 표현적 살인과 도구적 살인으로 살인범을 분류하였다. 분노에 의해 야기된 표현적 살인은 강간, 방화나 물리적 공격과 관련되어 극도의 폭력, 다량의 상처와 다양한 무기의 사용, 질식, 피해자의 사지 절단과 같은 범죄현장으로 특성화된다. 반면, 도

구적 테마의 범죄현장 행동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단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이나 돈과 같은 숨겨진(일차)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다. 즉 이런 범죄자는 피해자와의 인격적인 대결을 준비해 오지 않고, 그래서 현장 무기를 사용하거나 손의 힘 혹은 때리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를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하다가 살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Salfati, 2000). 분석의 이런 단편을 하나의 테마에서만 한정적으로 찾을 수 없고, 표출적 또는 도구적 행동패턴 모두와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특성을 지닌 사례를 두고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Berkowitz(1993)의 제안처럼 폭력 범죄자는 표출적 혹은 도구적으로 양분되는 두 개의 카테고리 중의 하나에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할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살인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표출적 혹은 도구적인 유형론(특히, 도구적 살인은 차갑고 계산적이다)의 제안과 범죄현장의 특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Block, 1977). 다만 이러한 분류는 범죄 현장과 살인범죄자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지표화함으로써 프로파일링 등 수사 절차의 타당성에 도움을 위해 시도되는 것들이다.

현장행동분석

범죄 관련 분야의 많은 실무가나 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강조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쇄살인범을 분류하는 많은 시도들을 해오고 있다(Canter, & Wentink, 2004). 수사 심리학적 접근은 범죄현

장의 범죄자 행동 특징과 피해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난 특징을 변인화하여 경험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유형론들이 통계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분석은 검거된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해결사건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범죄들의 특징에 대해 일반적 구조를 산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특정 사건에서 수집된 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의 특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적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Canter, 2004). 살인범죄를 다차원의 개념적인 교차와 유형 체계 분류를 시도했던 Wolfgang(1958)에 따르면 많은 살인은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 사이클이 상승하다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촉발한 살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하지만 Wolfgang이 실험한 수많은 변인 중 후속 연구나 형사사법체계에 유의미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피해자-가해자간의 관계 분류뿐이다(Smith, & Zahn, 1999). 또한 범죄자의 동기에 대한 추론보다 피해자와 범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관찰 가능한 행동특성을 바꾼다(Santtila, Pakkanen, Zappalà, Bosco, Valkama, & Mokros, 2008)는 것이 최근의 살인범죄 연구에 관한 결과들이다. 이렇듯 살인은 개인 간의 처리과정에서 발달하며, 이 처리과정은 개개인이 산출해낸 결과물과 그들 간의 관련성으로 본다. Salfati는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피해자를 향한 범죄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살인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상호적 처리과정이라는 다른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살인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것은 범죄 현장 자체에 반영될 것이며, 피해자를 통해

범죄자의 선택과 행동이 범죄현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 강조되는 것들은 범죄현장에서의 범죄자 행동(Almond, Duggan, Shine, & Canter, 2005; Canter, & Fritzon, 1998; Fritzon, Canter, & Wilton, 2001; Häkkänen, Puolakka, & Santtila, 2004; Kocsis, & Cooksey, 2002; Santilla, Häkkänen, Alison, & Whyte, 2003; Wachi, Watanabe, Yokota, Suzuki, Hoshino, Sato, & Fujita, 2007)으로,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 특성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것들을 평가하여 유형화 가정을 검증한다. 이 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성격적 특성의 연합 사이에서 함께 발생하는 빈도를 요구하고, 함께 발생하는 패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일차적인 가정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 Scaling; MDS)질차이다. 다차원척도분석은 변인들 중 같이 발생하는 변인들을 기하학적 공간 상의 거리값으로 표현해내는 기법이며, 범죄행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MDS 모델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어져 왔다(Canter, & Heritage, 1990; Canter, & Fritzon, 1998; Salfati, 2000).

살인범죄의 현장 행동분석을 위한 Salfati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초변인을 선정하였는데 첫째, 행동은 범죄현장에서부터 분명하게 관찰 가능하며 쉽게 오인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행동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처가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는지와 같은 범죄현장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범죄자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묶는 것과 같이 좀 더 제거 혹은 통제되는 상호

작용과 더불어 오버킬과 같은 관여의 강도를 참조한 좀 더 특화된 행동을 지표로 한다. 이러한 변인들은 한 사례에서 각각 행동의 부재 혹은 존재라는 양분된 형태로 기록되어 부호화될 수 있을 것이다(Salfati, 2003).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을 통한 범죄자의 행동분석 연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Canter, Elfgrén, & Häkkänen,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변인들은 크게 사체발견 장소 및 이동, 사체 상태, 의복 상태 및 성적요소, 상해부위, 공격도구(사인), 통제의 흔적, 범행도구와 재산 훔침 등 9개의 범주로 구분된다(표 2).

사체 발견 장소 및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살인이 이뤄진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는지, 발견되었다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살해 후 많은 사례에서 범죄자는 범죄현장으로 부터 사체를 운반하고 사체를 숨긴다. 이런 행동들의 중심에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범죄현장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이런 요소들은 범인특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런 행동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전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거나, 최소한 범죄자가 어느 정도라도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Salfati, 2000) 사체 발견 장소 및 이동에 관한 변인은 범죄현장요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또한 사체 및 의복의 상태는 살인범죄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각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피해자의 질이나 향문 삽입, 낫선 대상을 상대로 하는 강간, 다른 성적 증거를 남기는 것(정액)과 더불어 피

표 2. 살인범죄 행동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살인범죄의 현장행동

구분	행동변인
사체발견 장소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의 사체 발견(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 사체 발견 장소(건물 외부, 도시, 교외, 인적드문 곳 등) (Santtila et al., 2008) - 사체발견 어렵도록 숨겨 놓음(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사체를 몰에 버림(Santtila et al., 2001; 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사체 전시(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피해자 살아있는 동안에 강제로 이동(Santtila, et al., 2008) - 살해현장에서 사체 이동(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사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의 일부 제거(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경우(Salfati, & Haratsis, 2001) - 피해자의 몸을 자름(토파)(Salfati, & Haratsis, 2001) - 무언가로 몸을 덮거나 가림(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얼굴만 덮거나 가림(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생식기를 드러낸 채 발견(Santtila et al., 2008)
의복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옷을 입은 채 발견(Santtila et al., 2008) - 옷이 부분적으로 입혀진 채 발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알몸인 채로 발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힘(Salfati, & Dupont, 2006) - 의복 훼손(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성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두, 음경 등의 물리적 상처/성적 행동(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성기삽입 성공 혹은 시도(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항문삽입 성공 혹은 시도(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구강성교 성공 혹은 시도(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에게 이물질 삽입(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사정여부(Santtila et al., 2008) - 검시를 통해 드러난 성적행동(Santtila et al., 2008) - 시간의 증거(Santtila et al., 2001)
상해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와 얼굴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몸통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표 2. 살인범죄 행동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살인범죄의 현장행동 (계속)

구분	행동변인
상해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 다리에 상처(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목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목구멍(인후)에 상처(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8) - 다량의 상처가 몸의 여러 군데에 분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몸의 한 부분에만 상처 있음(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한 장소에 다량의 상처 있음(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공격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찌름 및 날카로운 물건에 관통(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무딘 도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손의 힘에 의한 상처(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숨 막힘에 의한 질식(베개나 천 등으로 질식)(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목 조름에 의한 질식(교살)(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약물 혹은 독살(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 발로 차거나 때림(Santtila et al., 2008) - 오버킬(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통제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팔다리 결박(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 눈가림(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에게 채갈 물림(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소음제거를 위해 사용된 물건(Santtila et al., 2008) - 피해자 고문흔적(Santtila et al., 2008) - 범행 전 초인종이나 전화기 망가뜨림(Santtila et al., 2001)
재산훔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확인 되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신원확인 되지 않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 - 가치 있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 뒤진(물색) 흔적과 같은 절도나 강도 관련된 행동(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범행도구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범행도구 가져옴(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현장에서 사용하던 무기로 살해(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 현장에서 범행도구 발견(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 사체 혹은 범행현장에 방화(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정액이나 지문, 족적 닦기 등 범인에 의해 파괴된 증거(Santtila et al., 2008)의 법적 인식(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 어두울 때 범행 (Salfati, & Haratsis, 2001; Salfati, & Dupont, 2006)

해자의 옷을 손상시키고, 피해자의 의복을 부분적으로 벗겨놓거나 알몸으로 남겨 두는 행동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은 낮은 빈도이기는 하나 범죄자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성적 부분을 포함하는 도구적 범죄현장의 테마를 가정한다(Salfati, 2000). 실제 공격도구를 가지고 상해하면 공격도구가 없는 경우보다 죽음의 가능성은 증가하며(Kleck, & McElrath, 1991), 공격도구 존재만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공격도구의 사용이 어떤 유형보다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Brennan, Moore, & Shepherd, 2006)는 공격도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의견들(Wilkinson, & Fagan, 2001; Sheley, & Wright, 1993; Brennan, & Moore, 2009; Khoury-Kassabri, Astor, & Benbenishty, 2007; Hemenway, Kennedy, Kawachi, & Putnam, 2001; Stretesky, Pogrebin, Unnithan, & Venor, 2007; Stretesky, & Pogrebin, 2007; Barlas, & Egan, 2006)이 있다. 이와는 달리 공격도구의 선택과 사용에 범행 동기나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등 단순한 측면으로 이러한 복잡한 행동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Nabi, 2002; Guerra, Huesmann, & Spindler, 2003)는 주장 등 공격도구와 범죄행동과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질식과 함께 약물 혹은 독살(Salfati, 2000; Salfati, & Dupont, 2006)은 범죄자가 감정적으로 많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이런 방법으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들은 상처 입기 쉬운(나약한) 피해자들로 아이들이나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다(Salfati, 2000). 피해자를 구속(속박)한다는 것은 범죄 상황에서 통제를 좀 더 용이

하게 하고, 특히 비협조적이고 강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살인범들의 4% 정도만이 피해자를 구속하고 구속은 통제뿐만 아니라 성적인 요소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다(Kenneth, Rober, & Joseph, 1997). 또한 드문 행동이기는 하나 피해자 질식, 약물이나 독살 및 눈 가리기 등의 행동은 범죄자가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눈가림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범죄를 완전히 할 수 있다(Salfati, 2000). 즉,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죄자는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가 강도 등의 목적으로 살인하고 있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에게 뭔가 훔칠 것을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하게 된다. 잘못 들어간 주거 침입범(burglaries gone wrong)과 같이 범죄자는 성이나 돈과 같은 숨겨진 목적을 차후에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다.

현장으로 무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와의 대결을 예상했거나 이전에 폭력적 대결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럴 경우 통상 표현적 공격성의 테마로 분류된다. 반면 성이나 돈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범죄자는 피해자와의 인격적인 대결을 준비해 오지 않는다. 이럴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를 죽일 때 현장에 있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손의 힘(교살이나 때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도구적인 공격성이라는 테마로 분류된다(Salfati, 2000). 하지만, 장기 투옥경험으로 인해 돈을 훔치거나 성폭력을 하고 난 뒤 피해자 살해까지를 최초 범행목적으로 두어 계획

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강도 살인범의 범행에서,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테마는 자칫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가중시킨다. 범죄자가 법의학 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제거한 경우는 범죄 증거 제거의 필요성을 아는 범죄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와 범죄자가 관련된 아는 범죄자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듯 하나의 행동에도 매우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상이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살인범죄와 살인범죄 수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살인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살인범죄의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변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살인의 각기 다른 유형은 각각 다른 패턴 및 상관과 원인을 지녔으며 동질적인 집단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전체 살인을 근거로 한 분석적 결과가 살인범죄 유형화를 일반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다른 장소나 시대에 수행된 연구에서, 살인의 하위 유형간의 상대적 혼잡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에 대한 동질적인 집단으로의 분해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는다면, 살인범의 한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정인자를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 이러한 명백한 인식 없는 유형화 연구는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

려움을 야기하므로 우선적으로 전체 살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게 된다(Smith, & Zahn, 1999). 달리 말하자면 본문에서 살펴봤던 수많은 행동변인들은 시대 및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선행연구들과는 또 다른 국내 살인범죄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결정할 때 범죄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Beauregard, & Bouchard, 2010)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하나는 범죄과정에서 범죄에서 빠져나갈 때 필요한 전략이고, 두 번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Cornish, & Clarke, 2002). 범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점들은 범죄현장에서 범죄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반영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살인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외국의 사례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알코올은 마약에 비해 살인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논의되고 있으며(Smith, & Zahn, 1999), Fagan(1990)의 연구결과는 알코올이 대인간 폭력행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해준다. 기존의 살인범죄 현장분석 연구에서 알코올에 근거한 현장행동변인은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알코올이 반영된 살인범죄 현장과 일반적인 살인범죄 현장특성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물론 알코올에 허용적인 우리문화에서는 알코올 변수가 전체 행동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위험성이 있으나 이러한 위험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행동변수와 알코올과

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인 범죄자의 어떤 특성들이 범죄 현장에서 독특한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지 범죄자의 심리적, 사회 문화적 특성에 근거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현장의 행동 이해와 이를 통한 범죄자의 특성 이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살인 범죄의 수사는 물론 예방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대안도 제시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박형민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정식 (2005). 살인범들에 대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살인범들의 정신병질과 기질불안에 따른 범행특성 분석-. 2005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혁 (2002).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3, 111-145.
- 박순진 (2000). 피살자유발에 의한 살인의 개념과 실제. 피해자학 연구8(2000. 6), 한국 피해자학회, pp.325-356.
- 이경식 역, Brian Innes, 저 (2005). 법의학과 과학수사,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Human & Books.
- 이수정 (2010). 최신범죄심리학(제2판). 북카페.
- 이수정 · 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39-77.
-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 박영사.
- 경찰백서, 2009.
- Aki Roberts. (2007). Predictors of Homicide Clearance by arrest;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NIBRS incidents. *Homicide Studies*, Vol. 11, No. 2, 82-93.
- Alex Thio. (1983). *Deviant Behavior*(2nd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 p.107-109.
- Almond, L., Duggan, L., Shine, J., & Canter, D. (2005). Test of the arson system model in an incarcerated population. *Psychology, Crime & Law*, 11, 1, 1-15.
- Andrews, D., & Bonta, J. (200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3rd edition.), Cincinnati: Anderson.
- Andrews, D., Bonta, J., & Hoyer, R. D. (1990).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19-52.
- Barlas, J., & Egan, V. (2006). Weapons carrying in British teenagers: the role of personality, delinquency, sensational interests and mating effort.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17, 53-72.
- Bartol, C. R. (1999). *Criminal behavior-A Psychosocial approach*. Prentice Hall, United States.
- Baumgartner, K., Ferrari, S., & Palemo, G. (2008). Constructing Bayesian Networks for criminal profiling from limited data. *Knowledge-Based System*, 21, 563-572.
- Berkowitz, L. (1965). Some aspects of observ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359-369.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erkowitz, L. (1993).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ist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lack, D. J.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lack, D. J. (1980).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police*. New York: Academic Press.
- Black, H. C. (1990). *Black's law dictionary*. St. Paul, MN: West Publishing.
- Blackburn, R. (1971). Personality types among abnormal homicid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1, 14-31.
- Blackburn, Weiss, & Lamberti, 1960
- Block, R. (1977). *Violent crime*. Lexington, MA: Lexington.
- Brennan, I. R., Moore, S. C., & Shepherd, J. R. (2006). Non-firearm weapon use and injury severity: priorities for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12, 395-399.
- Browne, A. (1987). *When Battered Women Kill*. MacMillan Press, New York.
- Byunm, T. S., Cordner, G. W., & Green, J. R. (1982). Victim and offense characteristics: Impact of police investigative decision-making. *Criminology*, 20, 301-318.
- C. R. Block. (1993).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victim precipitation, pp. 185-193 in Questions and answers in lethal and non-lethal violence.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workshop of the Homicide Research Working Group*. US Department of Justice.
- Canter, D. (2004). Offender profiling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1-15.
- Canter, D., & Fritzon, K. (1998). Differentiating arsonists: A model of firesetting actions and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73-96.
- Canter, D., & Heritage, R. (1990).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u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Vol. 1.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 Canter, D., & Wentink, N. (2004). An empirical test of the Holmes and Holmes serial murder typ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1, No. 4, 489-515.
- Cornish, D. B., & Clarke, R. V. (2002). Analyzing organized crimes. In a. R. Piquero & S. G. Tibbetts(Eds.), *Rational choice and criminal behaviour: recen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41-63). New York: Routledge.
- David P. Phillips. (1980).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New Evidence on an Old Controvers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139-148.
- Donald J. Mulvihill, Melvin M. Tumin, & Lynn A. Curtis. (1969). *Crime of Violence, Staff Report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 Vol. 11,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17.
-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4, 401-421.
- Douglas, Mullany, Teten, Ressler, Burgess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하 FBI)의

- Kocsis, R. N., Cooksey, R. W., & Irwin, H. J. (2002).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xual murder: An Empirical Mod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5), 532-554.
- Drukteinis, Albert M. (1992). Serial murder: The heart of darkness. *Psychiatric Annals*, Vol 22(10), Oct, 532-538.
- Dutton, M. A., Hohnacker, L. C., Halle, P. M., & Burghardt, K. J. (1994). Traumatic responses among battered women who kil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7, 549-564.
- Einhorn, H., & Hogarth, R. (1978). *Behavioral decision theory: Processes of judgement and choice*. In M. Rosenzweig & L. Pot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Endler, N. S. (1983). *Interactionism: A personalistic model, but not yet a theory*. In M. M. Pag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2; Personality-Current theory and research, pp.155-200.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Eric Beauregard, & Martin Bouchard. (2010). Cleaning up your act: Forensic awareness as a detection avoidance strateg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1160-1166.
- Ericsson, K. Anders, & Simon, Herbert A. (1980). Verbal reports as data. *Psychological Review*, Vol 87(3), 215-251.
- Fagan, J. (1990). Intoxication and aggression. In M. Tonry, & J. Q. Wilson(ed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 241-320.
- Fisher, B. A. J., & Baca, L. D. (2004). *Techniques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seventh edition. CRC Press LLC.
- Fiske, S. T. (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f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3, p.1-73). New York: Academic Press.
- Fox, J. A., & Levin, J. (1996). *Over Kill: Mass murder and serial killing exposed*. New York: Bantam Books.
- Fox, J. A., & Levin, J. (2005). *Extreme killing: Understanding serial murder*.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Fox, J. A., & Levin, J. (2006). *Will to kill: Explaining senseless murder*. Boston: Allyn Bacon.
- Fritzon, K., Canter, D., & Wilton, Z. (2001). The application of an action system model to destructive behaviour: the examples of arson and terrorism.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9, 657-690.
- Geberth, V. J.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Boca Raton, FL: CRC Press.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 575-607.
- Gottfredson, M. R., & Hindelang, M. J. (1979). A

- study of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3-18.
- Griffin, D., Dunning, D., & Ross, L. (1990). The role of construal processes in overconfident predictions about the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28-1139.
- Guerra, N. G., Huesmann, L. R., & Spindler, A. (2003). Community violence exposure, social cognition, and aggression among urb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1561-1576.
- Häkkinen, H., Puolakka, P., & Santtila, P. (2004). Crime scene action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in ars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97-214.
- Hemenway, D., Kennedy, B. P., Kawachi, I., & Putnam, R. D. (2001). Firearm prevalence and social capital. *Annals of Epidemiology*, 11, 484-490.
- Henry W. mannle and J. David Hirschel. (1988). *Eundamantals of Criminology(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 109-110.
- Hoch, Stephen J. (1985). Counterfactual reasoning and accuracy in predicting personal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Vol 11(4), 719-731.
- Holmes, R. M., & Holmes, S.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U. S.: Sage Publication, Inc.
- Holmes, R. M., & Holmes, S. T. (1998). *Serial Murder(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lmes, R. M., & Holmes, S. T. (2001). *Mass murder in the United State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Pearson Education.
- I.R. Brennan, & S. C. Moore. (2009). Weapon and violence: A review of the theory and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 215-225.
- James J. Sobol. (1997).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the involvement for victims of homicide. *Homicide Studies*, vol. 1 no. 4 359-376.
- John Dollard, Neal E. Miller, Leonard W. Doob, O. H. Mowrer, & Robert R. Sears.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 Polk. (1997). A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ctim-precipitated homicide. *Homicide Studies*, vol. 1 no. 2 141-168.
- Ken Levi. (1981). *Becoming a Hit Man: Neutralization in a very deviant career*, *Urban Life*, 1981, 10:47-63.
- Kenneth A. H., Rober D. K., & Joseph G. W. (1997). *Case management for missing children homicide investigation*. Christine O. Gregorie attorney General of Washington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Khoury-Kassabri, M., Astor, R. A., & Benbenishty, R. (2007). Weapon carrying in Israeli schools: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 and school factors.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34, 453-470.
- Kleck, G., & McElrath, K. (1991). The effects of weaponry on human violence. *Social Forces*, 69, 669-692.

- Klinger, D. A. (1997). Negotiating order in patrol work: An ecological theory of police response to deviance. *Criminology*, 35, 277-306.
- Kocsis, R. N., & Cooksey, R. W. (2002).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cr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6), 631-656.
- Koriat A., Lichtenstein, S., & Fischhoff, B. (1980). Reasons for conf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Vol 6(2), 107-118.
- Lee, M., Zimbardo, P. G., & Bertholf, M. (1977). Shy murderers. *Psychology Today*, 11, 69-70, 76, 148.
- Levenson, Michael R., Kiehl, Kent A., Fitzpatrick, Cory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8(1), Jan, 151-158.
- Leyton, E. (1986). *Hunting Humans: The rise of the Modern multiple murder*. Toronto: McClelland and Swewart.
- Listwan, Shelley, Johnson., Sperber, Kimberly, Gentry, Spruance, Lisa, Murphy, & Van Voorhis, Patricia. (2004). High anxiety offender in correctional settings: It's time for another look. *Federal Probation*, 00149128, Jun, Vol. 68, 43, Issue 1.
- Litwin, K. J. (2004). A multilevel multivariat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micide clear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 327-351.
- Megargee E. I. (1966).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aggression. *Psychol Monogr.* 80(3):1-29.
- Myers, D. (1990). *Social Psychology(3rd ed.)*, New York: McGraw-Hill, Inc.
- Nabi, R. (2002). *Anger, fear, uncertainty, and attitudes: A test of the cognitive-functional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69, 204-216.
- O'Keefe, M. (199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incarcerated battered women: A comparison of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abusers and those incarcerated for other offens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1), 71-85.
- Paese, P. A., & J. A. Sniezek. (1991). Influences on the appropriateness of confidence in judgment: Practice, effort, 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8: 100-30.
- Palmer A. R. (2002). Chimpanzee right-handedness reconsidered: evaluating the evidence with funnel plots. *Am J Phys Anthropol*, 118: 191-199.
- Paternoster, R. (1984). Prosecutorial discretion in requesting the death penalty: A case of victim-based racial discrimination. *Law and Society Review*, 18, 437-478.
- Perterson, R. D., & Hagan, J. (1984). Changing conceptions of race: Toward an account of anomalous findings of sentencing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56-70.
- Pinizzotto, A. J., & Finkel, N. J. (1990).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14, 215-232.
- Pozgain, I., Mandic, N., & Barkic, J. (1998). Homicides in war and peace in Croatia.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3(6), 1124-6.

- Puckett, J. L., & Lundman, R. J. (2003). Factors affecting homicide clearance: Multivariate analysis of a more complete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171-193.
- Quinney, R. (1977). *Class, state and crime*. New York: D. McKay.
- R. B. Felson, & S. F. Messener. (1998).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gender and intimacy on victim precipitation in homicide, *Criminology*, 36(2): 405-423.
- Reidel, M., & Rinehart, T. A. (1996). Murder clearances and missing dat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 83-102.
- Roberts, A. R., Zgoba, K. M., & Shahidullah, S. M. (2007). Recidivism among four types of homicide offenders: An exploratory analysis of 336 homicide offenders in New Jerse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493-507.
- Ronald Becker. (2000). *Criminal Investigation*. Southwest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Texas, Aspen Publishers, Inc.
- Rossomo, D. K. (2000).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FL: CRC Press.
- Salfati, C. G. & Grey, J. (2002). *Profiling U.S. Homicid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November, Chicago.
- Salfati, C. G. (2000).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in homicide: Implications for offender profiling. *Homicide Studies*, Vol. 4, No.3, 265-293.
- Salfati, C. G. (2001).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in Homicide and its Implication of Offender Profiling*.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vestigating Psychology Conference, Liverpool, England.
- Salfati, C. G., & Dupont, F. (2006). Canadian Homicide: An investigation of crime-scene actions. *Homicide Studies*, Vol. 10, No.2, 118-139.
- Salfati, C. G., & Haratsis, E. (2001). Greek homicide: A behavioral examination of offender crime-scene actions. *Homicide Studies*, Vol. 5, No.4, 335-362.
- Sampson, R. J., & Wilson, W. J. (1995).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 D. Peterson(Eds.), *Crime and inequality*(37-5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ntilla, P., Häkkänen, H., Alison, L., & Whyte, C. (2003). Juvenile firesetters: crime scene action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8, 1-20.
- Santilla, P., Canter, D., Elfgrén, T., & Häkkänen, H. (2001). The structure of crime-scene actions in Finnish homicides. *Homicide studies*, Vol. 5, No. 4, 363-387.
- Santilla, P., Pakkanen, T., Zappalà, A., Bosco, D., Valkama, M., & Mokros, A. (2008). Behavioural crime linking in serial homicide. *Psychology, Crime & Law*, Vol. 14, No. 3, 245-265.
- Savitz, L. D., Kumar, K. S., & Turner, S. H. (1993). *Victim-precipitated killings and "bomicide contests."* In C. R. Block & R. L. Block(Eds.),

- Questions and answers in lethal and nonlethal violence (pp.195-198).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heley, J. F., & Wright, J. D. (1993). Motivations for gun possession and carrying among serious juvenile-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1, 375-388.
- Smith, M. D., & Zahn, M. A. (1999). *Homicide: A sourcebook of social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Sniezek, J. A., Henry, R. (1990). Revision, Weighting, and commitment in consensus group jud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5(1), 66-84.
- Stretesky, P. B., & Pogrebin, M. R. (2007). Gang related gun violence: Socialization, identity, and self.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6, 85-114.
- Stretesky, P. B., Pogrebin, M., Unnithan, N. P., & Venor, G. (2007). Prisonization and accounts of gun carry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 485-497.
- Tupin, Joe P., Mahar, Dennis, Smith, David. (1973). Two types of violent offenders with psychosocial descriptors.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Vol 34(7), Oct, 356-363.
- Turk, A. T. (1969). *Criminality and legal order*: Chicago: Rand-McNally.
- W. Petherick(2003). The role of profiling in American society: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Comparing applied profi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173, 1-26.
- Wachi, T., Watanabe, K., Yokota, K., Suzuki, M., Hoshino, M., Sato, A., & Fujita, G. (2007). Offender and cr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serial arsonists in Japan.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4, 29-52.
- Warren, M., & staff of the Community Treatment Project. (1966). *Interpersonal maturity level classific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low, middle, and high maturity delinquents*, Sacramento: California Youth Authority.
- Watson. (2001). *Iowa Longitudinal Personality Project(ILPP) Newsletter*, Iowa University.
- Wilkinson, D. L., & Fagan, J. (2001). A theory of violent events. In R. F. Meier, L. W. Kennedy & V. F. Sacco(Eds.),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Crime*(169-195)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William J. Chambliss. (1969). *Crime and the Legal Process*, New York: McGraw-Hill, pp.360-378.
- Wolfgang, M. E. (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54.
- 1 차원고접수 : 2011. 7. 5.
 심사통과접수 : 2011. 7. 14.
 최종원고접수 : 2011. 7. 28.

Review of Crime scene feature for Homicide offender profiling

Sun young Go

Science Team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People hardly ever Homicide, so people think to that people is strange. But most of Homicide is in a minority related mental factor and is involved in the other many factor(Howitt, 2002). Statistically, nevertheless the number of deaths of Homicide more than that of traffic people afraid of Homicide and thought one of the most dangerous crime(Lee, 2002). Because damage bring Homicide as well as threat of life is hard to take recover fully and the damage of family of the deceased will be huge(Lee, 2010). Many scholar argue that these Homicide crime brings to poor socio-economic, family disorganization and failure community, one of them argue that brings to community admire or do justice to a culture of violence(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A many variables of social, culture, and personal coexist together when the Homicide take place, the officer(detective) of must be know that. But when the Homicide case investigation many detective start to investigation such as understand of cases or select the suspect by first idea or intuition. If intuition of appearance on the crime scene match up with the essentials of the case the case will be short, on the contrary to this the officer cannot help having unsolved cases. Therefore if it possible offer to the officer with more objective and empirical study, the error of uncertainty of investigation of Homicide cases will be can reduce. This is pre-study for crime scene behavior analysis appeared homicide crime scene, the causal, the feature and the investigation of Homicide, besides review theoretical foundation of crime scene analysis of homicides. Especially, this study review behavioral variables of homicide crime scenes force to possible scientific and objective investigation. When Criminal decides the offence, they must be have the answer what is the need of finish the crime and how exits the crime scene and attempts the avoid detection(Beauregard, & Bouchard, 2010). Thus criminal should to that in the strategy with how exits the crime scene and attempts the avoid detection(Cornish, & Clarke, 2002). In the crime scene reflect the feature of the criminal with thought highly of crime. This study review previous studies for that crime scene behavior of Korean homicides verify whether of difference or not. Hereafter, the study need to analysis with real homicide crime cases, besides it's necessary to study of relation betwe en alcohol and feature of homicide crime, get wired DB o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feature of homicide offender.

Key words : *Feature of homicides, Homicide investigation, Criminal profiling, Offender classification, Crime scene behavior of Homicide*